

근대 문학자의 한자어 인식과 국문/한글 문체*

문 혜 윤**

차 례

- | | |
|----------------------|---------------------|
| 1. 국문/한글 문체, 그리고 한자어 | 3) 1950년대 '해석'의 갈림길 |
| 2. 문학자의 한자어 인식 | 3. 국한문체 재인식의 필요성 |
| 1) 1910년대 '진술'의 가능성 | 4. 결론 |
| 2) 1930년대 '표현'의 실험 | |

국문초록

근대 '국문' 담론은 민족의 존립을 언어에 투사하는 어문민족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국문' 담론의 주장과 '한글' 문장의 실재는 겹치기도 하고 분절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한글 문장의 형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문/한자/한자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문학자들의 한자어 인식 변화를 살폈다. 1910년대 한글 문어 체계 수립의 중심 문제는 '언문일치'였다. 이는 어휘와 구절을 배열하는 어순의 문제였다. 한문식 문법이 가미된 구절이 문장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문 구절들을 이어붙이는 한글의 토나 문법적 요소가 개입함으로써 문장을 만들 수 있

* 이 논문은 2020년 10월 한국어문교육연구회에서 개최한 제228회 전국학술대회 (주제: 근대어문학의 성립과 한자 문제)의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부교수

다. 한문식 문법의 개입 정도, 한자 표기의 노출/비노출, 한자어 사용의 빈도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주장하는 쪽의 한자/한자어 배제와 표음주의 표기법을 주장하는 쪽의 한자/한자어 허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학자들은 표의주의 표기법에 찬성하였지만, 한글 문장의 표현 범위 확대를 위해 한자 노출 표기를 허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자어의 고유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에는 한자와 한자어의 배제를 통해 ‘순수한’ 국어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문학자들은 더 이상 어문운동의 대의에 동조하지 않고, 한자어가 생활에 스며든 정도를 파악하여서 한자 표기를 노출하지 않는 한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한글 문장의 형성에 한자/한자어의 문제는 끊임없이 개입한다. 국문체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국문의 성립이 필수적인 국가 형성의 시점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어까지 순우리말로 모두 대체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국한문체의 끝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한문체와 국문체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해 온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한문, 한자, 한자어, 한글, 국문체, 국한문체, 진술, 표현, 해석

1. 국문/한글 문체, 그리고 한자어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문학은 그것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 매체, 문단 작동의 복합적인 산물임이 밝혀졌다. 한국 근대문학은 활자 매체를 통해 작품의 발표 지면을 확보하였고, 진출입이 폐쇄적인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등단 제도를 통과한 작가들끼리의 문단을 구축하는 등 생산·유통의 측면에서 전근대 문학과 차이를 드러냈다.¹⁾ 매체의 편집 방침이

작품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했고, 감시와 검열을 비껴가기 위해 표현 기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학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전환하여 산출되는 예술’이라는 기본적인 정의에 집중한다면,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한글 문어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학은 언어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근대 들어 문자의 주도권이 한문에서 한글로 이동하면서 문학의 존립 방법, 표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글 문어 체계를 기반으로 작품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한글 글쓰기는 전면화되지 않았다. 한문이 문어 체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문 글쓰기와 한글 글쓰기는 향유 집단 및 향유 방식에 차이를 보이며 영역이 분리된 채 공존하였다. 조선 후기 들어 이러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한문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 텍스트를 한문으로 번역, 그리고 동일 내용을 한문과 한글 텍스트로 동시 보급하는 방식 등이 나타나 한문 공용어 체제가 완성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²⁾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문어의 체계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글 글쓰기의 전면적 실행은 한자권³⁾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도하고 한문과 한글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한

-
- 1) 박헌호에 따르면, 근대가 창출한 제도 속에서 근대문학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사회운동계, 교육계, 학문계 등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여러 제약이 존재했던 식민지시기에는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학 활동이 사회적 명분과 인정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토대였다. 근대문학 성립에 미디어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였다.(박헌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참조.)
 - 2) 안대회, 『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2006, 206-208쪽 참조.
 - 3) ‘한자권’은 사이토 마레스이 사용한 용어이다. 한자 문화권, 한문 문화권 등의 용어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그 지역을 덮고 있던 한자에 의한 서기 체계 권역’라는 의미로 ‘한자권’을 사용하였다.(사이토 마레스이, 『한자권의 성립』, 허지향 역, 글항아리, 2018, 12쪽 참조)

시기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조정의 상징적인 기점은 1894년 11월 21일 반포된 고종의 칙령 제1호 공문 규정 제14조이다.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섞어 쓴다)”의 규정은 한글을 ‘언문(諺文)’이 아닌 ‘국문(國文)’으로, 한문을 ‘진문(眞文)’이 아닌 ‘중국 문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드러낸다. 이 포고는 해방 이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로 다시 소환되었다. 1948년 10월 9일 공포된 법률 제6호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규정은 한글을 표기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고종의 포고가 한글 문장 옆에 한문으로 번역을 달거나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를 혼용하라고 했다면, 한글 전용법은 한글 표기 옆에 괄호를 쳐서 한자를 병기하라고 지시한다. 한글 사용이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규정)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지점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그것의 제정으로 실생활의 언어 편제가 즉시 뒤바뀌지는 않는다. 1880년 무렵부터 한문에 중심을 두었던 공적 문어 체계를 한글로 이동하려는 인식·현상이 생겨났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은 다양한 국한문체였다. 1900년대부터 식민지 기간 내내 한글 문어 체계 수립을 위한 여러 시도와 논의, 대립이 계속되었지만, 해방 후에도 여전히 식민지시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온 국어/국문의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하지만 법(규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이 두 법이 나타난 것은 국문의 영역이 확대되어가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문과 한문이 여전히 공존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글 문장 형성을 논의하는 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던져준다. 첫째, ‘국문’과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라는 점

에서 동의어이지만, 그 용어가 제출된 시대를 감안했을 때 완전하게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고 보기 힘들다. 고종의 포고 이후인 1897년에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체(國體)의 변모가 꾀해졌고, 한글 전용법 공포 직전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국가 수립에서 자국문은 상징적인 지위를 점한다. 자국문을 사용한 공문서, 신문 및 잡지의 발행을 통해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전파되는 범위까지를 국가의 경계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고종의 포고에서 “국문”으로 지칭되다가 해방 이후 “한글”로 불리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시기를 통과하면서 ‘국문’ 대신 ‘한글’이 민족의 존립을 대변하는 ‘국가어(국가를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언어/문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국가 수립이 좌절된 한국에서 ‘한글’이 민족을 규합하는 중요한 장치로 부상하였다.⁴⁾

둘째, ‘한글’은 한문/한자/한자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외연과 의미를 만들었다. 이미 근대 초기에 한자를 중국의 문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지만, 식민지로 접어든 이후 한자 비판이 거세져⁵⁾ 한자어 폐지까지 주장되기도 하였다. 한글은 한문/한자와도 대립하였지만, 한자어와도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다. 해방 직후 국어 수립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 한자/한자어 폐지였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1945년 9월 조선어학회 자매기관으로 한자 폐지 단체가 결성되었

4) ‘국문’과 ‘한글’이 운동과 기획을 통해 그 의미를 형성해 나갔다는 점은 이해령, 『한글운동과 근대어 이데올로기』,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2005. 여름;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출판부, 2008; 김병문, 『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201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이해령은 “식민지시대의 한자 비판 논리는 근대계몽기와 비슷하지만 그 콘텍스트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한자 비판은 한글운동의 본격화와 맞물려 강해졌으며 이전 시기보다 그 논리에 있어 디테일해지고 정도가 노골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한글’의 순정한 내셔널리티와 근대어로서의 자격을 보증한 참조물은 일본어가 아니라 한자였다”고 언급하였다.(『한자 인식과 근대어의 내셔널리티』,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23-224쪽.)

고, 1945년 12월에는 국어 교과서에서의 한자 폐지가 결의되었다. 1948년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에서는 일본어 잔재를 청산한다는 국어 순화의 기치 아래 한자어를 숙아내려고 하였다. 즉, 한글 문체의 형성에는 한문식 어순이 포함된 문장에서 한글식 문장으로의 이동, 한자를 노출하여 표기하는 것과 노출하지 않고 표기하는 것,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까지를 아우르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한글’은 한국어의 존립이 위협받던 시기에 민족의 상징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문자’뿐 아니라 ‘한국의 언어’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국문’에서 ‘한글’로, 다시 ‘국어’로 시대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졌는데, 전반적으로 문자 중심의 논의에서 언어 중심의 논의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한글’에 문자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언어로서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과 아울러, 해방 이후의 담론은 주로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한 ‘국어’의 수립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제정된 국어 기본법 제1장 제3조에는, ‘국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라는 것과 ‘한글’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언어와 문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근대 초기의 ‘국문’ 위주의 논의에서 그 초점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쯤의 시점에는 국문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도, 한글과 한자가 불안하게 공존할 이유도 없어진 것이다.

‘국문’ 담론(이념)과 ‘한글’ 사용(실천)⁶⁾ 사이에 문학자들의 언어 인식과 운용이 있다. 즉, 시대적 대의가 ‘국문’에서 ‘한글’로, 그리고 ‘국어’로 변화는 과정에서 문학자들은 한문식 문법에서 벗어난 한글 문장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한자어의 한자 표기 여부를 고민했으며, 한자어를 한국어 어휘 안에 포함하려고 하였다. 시대의 담론을 따르면서도, 거기서

6) 임상석은 한글로 번역된 작품들의 한국문학사 구성을 논하면서, 국문이 “자생적 언어생활의 역사라는 실체라는 층위와 국민국가의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체제, 곧 공식어의 층위”를 가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글전용과 한국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72,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144쪽.)

벗어난 지점에 문학어를 세우고자 하였다. 근대 초기 문학자들은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를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어를 사용하여 문학을 창작하고, 문학 창작을 통해 국어를 완성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문학 활동 자체가 문학어 형성뿐 아니라 한글 문장 형성에도 관여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 글은 문학어에 기입된 다양한 언어적 계기들 중 국문체 형성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자 여전히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한자/한자어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 국문체의 성립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적 이념·담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한자/한자어의 자장(磁場)과 완전히 결별하기 어려웠다. 문학자들이 한자/한자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한자/한자어와 맺었던 관계의 양상이 어떠한는지 정리함으로써 문학어의 길 찾기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2. 문학자의 한자어 인식

실속과 능률(能率)은 글의 최고의 덕이다.

이렇게 실속 있는 말과 글을, 능률적으로 하고 쓰는 반면에, 또한 남의 말과 글을 똑바로 알아듣고 보는 법, 즉 옳은 해석(解釋)과 이해(理解)의 이론을 수립하는 것은 언어실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반면이다.

이리하여 진술(陳述), 표현(表現), 해석의 전 과정을 통한, 말과 글의 전달(傳達)작용의 전모를 통일된 종합적인 언어이론의 기초 위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⁷⁾

김기림은 『문장론신강』을 출간하면서 위와 같은 머리말을 적었다. 진술→ 표현→ 해석은, 생각이나 느낌이 언어로 전환되고, 그것을 사실 혹은 진실에 가깝게 드러내며, 그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7) 김기림,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1950, 2쪽.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한글 문어 체계가 정착되고 확장되었던 그간의 과정에 대응하기도 한다. ‘진술’, ‘표현’, ‘해석’의 단계로 변화해 간 언어 인식을 논하고자 한다.

1) 1910년대 ‘진술’의 가능성

근대 초기에 한글만으로 문장을 구성하거나 국한문을 다양한 형태로 혼용하는 실험이 행해졌다. 1910년대는 그러한 실험을 이어받아, 생각과 느낌을 한글 문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어떠한 형태로든 언문일치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시기였다.

최남선과 주시경의 확인 가능한 인연은 1910년 설립된 조선광문회부터이다. 조선광문회는 최남선이 “신문관 건물 2층에 설치한 고전 및 사전 편찬기관이다.”⁸⁾ 두 사람이 한글 정비 및 문화/문학 운동에서 담당했던 활동이나 업적과 별개로, 그 당시 지식인들이 조선광문회에 모여 조선문화의 건설 및 조선어문의 정리를 위해 함께 의기투합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주시경은 독립신문사에서 신문의 교열을 맡았고,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여 맞춤법의 확립을 꾀하였으며, 조선어강습원에서 훗날 조선어학회의 주요 인사가 되는 “신명균, 장지영, 최현배, 정열모, 권덕규, 이병기 등”⁹⁾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조선광문회에서 맡았던 일은 사전 편찬과 문법 정리였는데, 조선광문회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사전은 한한(漢韓) 대역사전인 『신자전』이었다. “조선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자에 대한 정리가 조선어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¹⁰⁾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남선이 일본에서 인쇄 기계를 들여와 신문관을 설립하고 여러 잡지들과 고전 문헌, 역사전기소설, 외국 번역 작품 등을 출판했다는 것은 익

8)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한국사학사학회, 2001.03, 80쪽.

9)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2005, 122쪽.

10) 같은 책, 132쪽.

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창간한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새별』 등의 잡지 제명(題名)에서도 순우리말 지향을 엿볼 수 있지만, 그 잡지들의 기사에도 한자(漢字)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1914년 주시경의 갑작스런 작고 이후 최남선이 『청춘』에 주시경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나, 주시경의 호인 한헌샘과 비슷한 한샘이라는 호를 사용한 것을 보아도 최남선과 주시경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글을 ‘국문’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이후 ‘한글’이라는 명칭을 주시경에게 제시했다는 견해도 있으며¹¹⁾ 주시경의 조선어강습회 이념을 “신문관의 매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¹²⁾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주시경의 제자들은 최남선이 창간한 잡지인 『청춘』의 현상문에 주요 투고자이기도 했다.¹³⁾

그런데 주시경과 최남선의 한글 의식과는 별개로 그것을 설파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문장들에는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여러 방식들이 공존했다. 주시경이 쓴 문장들만 살펴도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¹⁴⁾에서의 “대저 글은 두가지가 잇스니 하나흔 형상을 표하는 글이요 하나흔 말을 표하는 글이라”와 같은, 국문식 문법에 한자 어휘를 한글로 표기한 형태가 존재했는가 하면, 「必尙自國文言」(1907)¹⁵⁾처럼

11) ‘한글’이라는 용어를 주시경이 지은 것인지, 최남선이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고영근은 「‘한글’의 작명부는 누구일까」(『새국어생활』 13권 1호, 2003.봄)에서 주시경을 지목하였으나, 임흥빈은 「‘한글’ 명명자와 사료 검증의 문제」(『어문연구』 35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에서 최남선이라 언급하였다.

12) 권두연, 「신문관의 ‘문화운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02, 111쪽.

13) “이들이 『청춘』 현상문에 적극적으로었던 것은 우선 조선광문화 운영진의 한사람이었던 주시경과 최남선의 밀접한 관계,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주시경 그룹과 『청춘』 그룹의 친연성, 국문운동의 참여로 근대적 글쓰기에 익숙했던 점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248-249쪽)”

14) 하동호 편, 『국문론집성』, 탑출판사, 1985, 55쪽.

“吾地球가 成體된 後로 其 위에 不動物과 動物이 生호니”와 같은, 한문식 문법과 국문식 문법이 뒤섞이고 한자 표기가 드러나는 형태도 존재했다. 최남선이 발간한 잡지들마다, 잡지의 기사들마다 문체의 양상이 다양하였는데, 이는 주시경과 최남선의 시대에 새로운 문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실험이 행해졌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 작가가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문체를 구사하는 경우, 그것은 발표 매체의 출간 방향에 맞추거나 독자들의 언어 의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한글 글 쓰기 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많았기 때문이다.

최남선은 근대 문학 형성 및 한글 문체 수립을 위해 『소년』과 『청춘』 등의 잡지에서 문예공모를 시행하였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청춘』의 주요 투고자였다는 점을 앞서 언급하였는데, 그들뿐 아니라 “『소년』과 『청춘』에 다양한 문장을 기고했던 이광수·현상윤·진학문·김여제 등”¹⁵⁾도 한글 문장의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는 데에 동참한 이들이었다. 다양한 문체가 공존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향했던 문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최남선이 문예공모에서 요구했던 것은 “한자(漢字) 약간 석근 시문체(時文體)”였다. 『청춘』의 현상 공모는 시조, 한시, 잡가 등의 전통 장르와 신체시가, 보통문, 단편소설 등의 근대 장르를 함께 모집했는데, 보통문은 ‘고향의 사정을 녹송(錄送)하는 문(文)’, ‘자기의 근황을 보지(報知)하는 문(文)’ 등 자신 및 자신의 주변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고, 단편소설에서는 특히 ‘시문체’를 요구하였다. 두 가지 주제의 보통문은 최남선이 심사했고, 단편소설은 이광수가 심사했다.¹⁶⁾

현상 공모를 통해 등장한 글들, 그리고 최남선이 편집·출간한 『시문독본(時文讀本)』에 묶인 글들을 살펴보면 한자가 노출되면서 한문 문법이 개입된 글도 있고, 한글의 문법에 맞춘 글도 있었다. 최남선(혹은 이광수)의 시문(時文)은 “어떤 획일화된 체계, 혹은 하나의 규범”으로 제시

15) 같은 책, 74쪽.

16) 한기형, 앞의 글, 232쪽.

17) 『청춘』 7호, 1917: 영인본, 역락, 2007, 144-145쪽.

되었다기보다 “시문체”라는 하나의 스펙트럼 속에서 당시 각각의 층위에서 사용된 바른 문장들을 모음으로써 통합적인 문법의 형태”¹⁸⁾로 제시된 것이었다. 문예 공모 및 문법이 담긴 책 출간을 통해 당대인에게 한글로 문장을 쓰는 법을 익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최남선의 시대에 한글 문장 쓰기의 주된 관심사는 ‘언문일치’의 수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문식 문법의 개입 정도, 한자 표기의 노출/비노출, 한자어 사용의 빈도 등은 주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소설 장르에서의 한글 전용은 꽤 이른 시기에 정착되었다. 한글로 쓰인 고전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근대계몽기의 소설은 한글로 쓰인다는 점이 의외로, 당연히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한글소설로부터 이어진 국문체의 전통은 여러 지점에서 갱신되어야 했다. 김동인은 “지금 앉아서 보자면 평범하고 당연한 ‘문장’도 처음 이를 쓸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심과 주저라는 관문을 통과하고서 비로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1919년 창간한 동인지 『창조』에서 완전한 구어체의 사용, 과거사의 효과적 활용, 3인칭 대명사 ‘그’의 첫 사용, 새로운 용어의 발굴(‘교수’를 ‘가르침’, ‘대합실’을 ‘기다림방’으로) 등의 업적이 이루어졌음을 회고하기도 했다.¹⁹⁾ 작가들은 한국어 어휘에도 민감하지 못했다. “황석우의 경우 그는 초창기의 한 작품에서 ‘여울’을 淵=곧 소용돌이의 뜻으로 썼다. 이것은 그가 쉬운 우리말 어휘의 뜻에 밝지 못했음을 가리킨다.”²⁰⁾ 이렇듯, 머릿속 구상을 한글 문장으로 옮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언문일치’, 즉 어휘를 배열하는 어순의 문제였다. 어떤 어휘를 사용할지, 한자 표기를 노출할지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언문일치’의 이상(理想)은 말과 글의 일치이다. 그러나 김동인이 자신의 업적이라 자화자찬했으며, 현대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다’체 문장은

18) 권두연, 앞의 글, 162쪽.

19) 김동인, 『문단 30년의 자취』, 『신천지』, 1948.04.

20)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상)』, 학연사, 1986, 169-170쪽.

언문일치 문장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체는 명백한 하대(下待)의 말투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미도 아니다. ‘-더라’에 비해 ‘-다’가 언문일치에 가깝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의 한국어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험이 드물었던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문장으로 ‘진술’하는 방식을 실험함으로써 국문체의 형식을 찾아나갔다. 한문식 문법이 개입된 구절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구절을 문장의 의미로 이어지게 하는 문법적 요소 및 토가 붙는다면 그 문장은 읽을 수 있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언문일치’ 문장의 수립이 국문학의 초창기에 당면한 문제였다.

2) 1930년대 ‘표현’의 실험

한국어의 문법과 문형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난 이후인 1930년대는 한국어의 표현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로 미세한 감정, 복잡한 관념까지 담기는 어려웠다. 표기에서 한자를 배제하기 위해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한국어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기에 환영받지는 못하였다.

한국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한한(韓韓) 사전의 편찬 여부였다. 주시경은 조선광문회에서 『신사전』 발간을 마치자마자 한한 사전 ‘말모이’를 편찬하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1914년 타계한다. 함께 작업했던 제자 김두봉은 상하이로 망명했고(1919), 이규영은 사망하였다(1920). 출간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 원고는 1927년 계명구락부에 인수되었다. 최남선의 책임 아래 정인보, 임규, 양건식, 이윤재, 변영로 등이 참여하여 편찬 작업을 이어나갔다.²²⁾ 계명구락부는 “언문, 예의, 기타 생활 개선”을 위해 조직된 단체였는데, 기관지 『계명』에 발표되는 언문 관련 기사를 담당했던 박승빈이 이 단체의 중심인물이었다. 최남선은 3·1 독

21)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241쪽.

22) 최경봉, 앞의 책, 135쪽, 141쪽 참조.

립선언서 작성으로 옥고를 치렀는데,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는 주시경의 제자들이 모인 조선어학회 쪽보다 박승빈이 조직한 조선어학연구회의 어문 관련 입장에 동조하는 변화를 보였다. 1930년대 들어, ‘말모이’ 편찬에 힘을 모았던 인물들 중 정인보, 양건식, 이운재, 변영로는 조선어학회에 참여했고, 임규는 조선어학연구회로 이동했다.

조선어학회는 주시경의 제자들이 결집하여 만든 단체였다. 1921년 한글 연구를 위해 조선어연구회를 만들었다가 표기법, 표준어 확립을 위한 실천적 어문 운동에 매진하고자 1931년 조선어학회로 조직을 갱신하였다. 그들은 주시경의 표의주의(형태주의) 표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 대립한 조선어학연구회는 박승빈을 중심으로 하여 표음주의(음소주의) 표기법을 주장하였는데, 주시경과 한글 문장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최남선이 박승빈의 표기법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각 조직의 기관지명을 따서 일명 ‘한글파’와 ‘정음파’로 불린 이 두 파 사이의 논쟁에 전 사회적인 노력, 시간,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두 파의 대립은 “그전 광문화 시대의 동지였던 주시경과 최남선 씨가 분리되면서 실상 대립의 씨가 배태한 것”으로 “단순한 어학계의 대립이 아니라 어떤 더 깊은 기초를 띤 그것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견해²³⁾가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박승빈은 한자의 혼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雲이消하니雨가止하다”와 같이 한자를 드러내는 표기를 하고, “운이소하니우가지하다”와 같이 읽지 말고, “구름이사라지니비가그치다”와 같이 한자의 뜻을 풀이해서 읽기를 주장하였다.²⁴⁾ 이 주장에 뒤이어 다음과

23) 일성자(一聲子), 『한글·정음 대립 소사』, 『사해공론』 39호, 1938.06, 73쪽.

24) 박승빈, 『조선언문에 관한 요구(2)』, 『계명』, 1921.06, 6쪽. 물론 이전 시대의 문장과 비교하면, 박승빈의 방식이 한층 언문일치에 근접한 것이었다. 시정곤은 1906년 유길준의 『조선문전』, 1908년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1909년 주시경의 『고등국어문전』 예문들을 비교하면서 “박승빈의 경우 혼독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읽으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되지만 주시경이나 유길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였다.(『박승빈』, 박이정, 2015, 184쪽.)

같은 견해를 덧붙였다.

但主成部分을漢文으로記함을原則으로하되境遇에依하여諺文을用함도得함卽(一)「雲이사라지니비가止치다」이러하게書하야도妨碍가無함 終에一言을加함은 固有朝鮮文을崇尙하기爲하야 言文一致를圖하기爲하야, 衆人의學習함을易하게하기爲하야 漢文全廢說을唱하는識者가有하나 余는此에贊同함을得하지못함²⁵⁾

박승빈은 한자 혼용 표기를 원칙으로 삼았고, 한문식 문법이 개재할 여지가 있는 한문 혼독도 허용하였다. 앞서 들었던 사례로 다시 설명하면, “雲이消하니雨가止하다”와 같은 문장을 ‘운이 소하니 우가 지하다’와 같이 읽을 경우 그 음성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다양한 의미 해석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자를 노출하는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한자를 노출하게 된다면 조선어학회의 ‘표음주의 표기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준용되었던 ‘표음주의 표기법’이 오히려 한글을 학습하기 쉬운 방식이었다. 조선어학연구회의 표기법은 크게 된소리 표기, 받침, 어미 활용 문제에서 조선어학회 안과 대립되는데,²⁶⁾ 어학적인 쟁점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조선어학연구회 안이 “훈민정음 부활”²⁷⁾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조선어학연구회는 훈민정음 시대로부터 공식화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던 표음 위주의 표기법을 이어받고 있고, 표음 위주의 표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미 혼동을 한자 혼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표음주의 표기법과 한자 혼용, 한문 혼독 허용은 이러한 이유로 공존할

25) 박승빈, 앞의 글, 6쪽.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26) 두 학회 사이의 표기법 논쟁이 격화되자 1932년 동아일보사에서 이 세 가지 쟁점을 두고 3일간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내용이 「한글 토론회 속기록」(『동아일보』, 1932.11.11-29)으로 남아 있다.

27) 야간총생(夜間叢生)의 일학자, 「문자 사용의 제일인자적 조선문예가 제씨에게 기함」, 『정음』 4호, 1934; 영인본, 『정음(상)』, 반도문화사, 1978, 325쪽.

수 있었다.

그런데 문학자들은 표기법 문제에서 조선어학회 편을 들어주었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발표된 이후 조선어학연구회의 한층 집요해지는 문제 제기에 반대하면서 강경애, 김동인, 이태준, 김기림, 박태원, 정지용, 이광수, 이은상 등 78명의 문학인이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²⁸⁾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어학연구회 측의 조선문기사정리기성회에서 『한글식 신철자법 반대 성명서』²⁹⁾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무려 112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문학자의 이름은 이상협, 유치진, 최남선 등 몇 명만 보일 뿐이다. 조선어학회의 견해에는 주시경 및 제자들의 어문운동을 통해 형성된 시대적 대의와 당위가 덧씌워져 있었다. 그러나 박승빈의 것은, 어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비과학적 견해이자 민족의 통일에 궤방을 놓는 견해로 취급되었다. 표기법 논쟁에서 조선어학회 측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나라 조선의 방식을 가져오기 싫었던(전통을 거부하고 싶었던) 무의식과 민족의 형성에 한문/한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의식이 만난 결과였다.

하지만 문학인들이 조선어학회 표기법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어학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동조했던 것은 아니다. 근대 초기 주시경은 문법서 간행, 사전 편찬, 맞춤법 제정을 조선어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삼았고, 조선어학회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착실히 많은 활동을 벌였다. 음소문자인 한글의 특성이 최대한 드러나는 가로풀어쓰기도 실험했으며, 순우리말 어휘의 확장을 위해 새 말을 만들기도 하였다. 1930년대의 상황상 선결되어야 했던 표기법 문제에 많은 노력이 투여될 수밖에 없었지만, 조선어학회는 궁극적으로 한자 표기가 사라지는 한글 전용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자어가 순우리말로 대체될 수 있다면 한자를 혼용할 것인지, 병기할 것인지, 전용할 것인지를

28) 강경애 외 77인, 『한글철자법시비에 대한 성명서』, 『한글』 16호, 1934.09; 영인본, 『한글(2)』, 박이정, 1996, 94쪽.

29) 하동호 편, 『한글논쟁논설집(하)』, 탑출판사, 1986, 525-526쪽.

논란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식민지시기에 중심이 된 표준화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문학자들도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대해 지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문학자들은 ‘언문일치’라 여겨지는 국문체의 기본적인 문형(어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문체의 풍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한국어만의 특질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시청각후미(視聽覺嗅味) 오감에 바탕을 둔 감각어 및 의성어·의태어의 구체성을 높이 평가하였다.³⁰⁾ 둘째, 한글맞춤법통일안에 규정된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를 지지하면서도 진실에 가까운 묘사를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³¹⁾ 셋째, 어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에 반대하였다. 새로 들어온 한자어나 외래어를 거부하지 않았고, 표준어의 사용을 추구하면서도 문체의 효과를 위해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미 언중에게 널리 사용된다면, 그것은 ‘남’이 아닌 ‘나’의 언어라고 여겼다.

가튼外國말이라도 이미朝鮮말이되야 누구든지 아는것이면 決코 달리 만든어쓸것이야니외다 ‘램프’라는것을 外國語라하야 ‘洋燈’이라고 고쳐 쓴다면 도로혀 웃을일이요 汽車가 불수레도 아니건마는 그것을 ‘불수레’라 가르친다면 귀이거슬니지 아니할수없는 일이니 이와가튼것은 決코 고칠것이 아니외다.³²⁾

즉 인위적으로 만드는 새말에 반대한 것이다. 때문에 한자어에 대해서도 “生氣 없는 過去의 漢字文體는 排擊해 마땅할것이나 漢字語가 나온다 해서 必要範圍內的 漢字語까지를 排斥할 理由는 없다”³³⁾고 하였다.

30) 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62-68쪽 참조.

31) 박태원, 『표현·묘사·기교』, 『조선중앙일보』, 1934.12.17 참조.

32) 김억, 『문장소론』, 『조선문단』, 1935.04, 100쪽.

33) 이태준, 앞의 책, 75쪽.

이태준이 주재한 잡지 『문장』에서는 고전 번역을 꾸준히 소개했고, 『한중록』 등의 내간체를 본 딴 문체를 실험을 했는데 이때, 한자/한자어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다. 표기법 논쟁을 이끌었던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로 문장을 쓰기 위해 한자어를 배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문학자들에게는 한글 사용이 중요한 것이었지, 한자어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고려의 사항이 되지 않았다.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가 되든, 되지 않든, 한글 문장 안에 사용된다면 한국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자들의 소설에서의 한글 전용과 시에서의 한자 노출이 대립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문학자들의 관심은 한글 문장의 ‘표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민족문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학자들은 국문체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했다고 할 수 있다.

3) 1950년대 ‘해석’의 갈림길

한글로 글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은 식민지시기에는 문장을 쓰는 법, 표기하는 법 등 문어 체계의 수립 문제가 중요했다면, 해방이 되면서 국어 수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하였다. 한자어의 한자 비노출 표기, 더 나아가 한자어를 대체하는 순우리말의 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시기였다.

조선어학회는 1942년-1945년 해방까지 지속된 조선어학회사건을 거치면서 그 성격과 위상이 다소 변화한다. 이운재, 안징 등 두 명의 회원이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사했고,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 회원 네 명이 해방될 때까지 수감되었다가 감옥을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³⁴⁾ 이 때문에 해방 직후 국어와 국문의 재건에 조선어학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국어 관련 주요한 업무를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였다.

34) 문혜윤, 『해방기 박태원의 문장론』,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03, 178-182쪽 참조.

미군정 학무국 편수과에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가 들어갔고, 조선어학회 재건 후 자매단체로 한글문화보급회(1945.09.26.), 한자폐지실행회(1945.11.30)를 만들어³⁵⁾ 완전한 한글 전용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 미 군정청 문교부 산하 자문기관인 ‘조선 교육 심의회’의 제9 교과서 분과에서 1945년 12월 8일 교과서에서의 한자 폐지를 결의하였다.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등·중등학교의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한자를 도림(괄호) 안에 적어 넣을 수 있다’고 하여, 한글 전용 교과서 편찬을 의결한 것이다.³⁶⁾ 1948년 6월 『우리말 도로찾기』, 1948년 『한자 안 쓰기 이론』 책자가 발간되었다. 국어와 국문의 재건 방향이 ‘한자 폐지’로 모아지던 중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같은 해 10월 9일 한글 전용법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른다.

한글 전용은 한자를 노출하여 표기하지 않는 것이지 한자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을 통해 한자어의 배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 폐지는 결국 한자어의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학무국 편수국장인 최현배는 한자어의 순우리말화, 가로풀어쓰기를 주장하였다. 해방 이전까지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지지를 표명했던 문학자들은 해방 이후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해방기의 논의는 겉으로 보면, 한자 폐지, 가로풀어쓰기 등 식민지 시대 어문운동의 논점을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조선어학회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조선 교육 심의회’의 교과서 분과 위원 중 한 사람인 국문학자 조윤제는 한자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신을 제외한 위원 모두가 한자 폐지를 찬성하는 바람에 통과되었다고 한다.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등

35)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2013, 28쪽 참조.

36) 조선 교육 심의회의 한자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는 이응호,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1974, 311-315쪽 참조.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소속 문인들이 한글 전용 및 교과서에서의 한자 폐지 시도를 해방 직후의 국수주의적인 분위기와 결부시켜 강도 높게 비판했는가 하면,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한자 폐지가 결의된 직후 현상윤과 최현배 사이에 언쟁이 벌어³⁷⁾지기도 하였다. 식민지시기에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일사불란하게 따랐던 신문과 잡지는 해방기의 한자 폐지 및 한자어 폐지에는 호응하지 않았다.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한글 전용법이 공포된 후 김기림은 「새 문체의 요망」(『자유신문』, 1948.11), 「새 문체의 갈길」(『신세대』, 1949.03-04), 「새말 만들기」(『학풍』, 1949.07), 「한자어의 실상」(『학풍』, 1949.10) 등 한자 문제를 거론하는 일련의 글들을 발표한다. 그리고 그 글들은 이태준과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시인이 상당히 늦게 편찬한 문장론인 「문장론신강」과 함께 『문장론신강』이란 제목의 단행본 안에 묶여 1950년 4월 출간되었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 사회적 버릇이요, 그런 까닭에 사회적 행동인 것이다. 우리 어문문제(語文問題)를 문자라는 외부적 형식적 기호의 면에서만 보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소박한 생각이다. 사회적 버릇, 행동으로서의 그 본질과 실체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자만 한자를 없이 해 놓으면 다 되는드시 생각한다면지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³⁸⁾

김기림은 외부의 압력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자를 없앤다고 하여도 그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한문투와 한자어들의 처리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또한, 그 한문투와 한자어들은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한자 폐지는 “우리말 본위의 문체(文體)”³⁹⁾를 세우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

37) 정영훈, 「해방 후 김기림의 한글 전용 논의에 대하여(1)」, 『우리어문연구』 44, 우리어문학회, 2012.09, 629쪽.

38) 김기림, 「새 문체의 갈길」, 『문장론신강』, 1950, 민중서관, 223쪽.

기림은, 한글 전용을 실천하면서 한자어를 국문체에 수용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한자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한자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이 시기에 어학자와 문학자의 월북이 이어졌다. 조선어학회 회원 이극로, 김병제가 월북하였고,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등도 월북하였다. 이는 한국어 및 한글 문장에 대한 그간의 인식—즉, 언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연구자들의 월북이나 ‘사상’보다 ‘기교’에 관심을 두었던 작가들의 월북은, 그 사람의 정신을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어문의 민족 통합의 가능성, 혹은 어문 통일의 실천적 힘이 그러한 행동을 추동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월북을 선택하지 않은(6·25 전쟁 중 납북되어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김기림은, 언어/문자 생활의 중심을 화자/필자에서 청자/독자로 옮기는, ‘이해’와 ‘해석’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이동한다. 문학자들은 그 이전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듯 보인다.

3. 국한문체 재인식의 필요성

한글이 근대어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한국이 처했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근대 초기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촉구하던 내외부의 압력은 조선을 더 이상 보편 문어 질서 안에 편안히 존속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적 문어인 한문과 평화롭게 공존하던 한글은 근대 초기 민족의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한글은 ‘나’와 ‘남’을 가르는 경계로 작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글과 한문 사이에 대척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근대 한국을 풍미했던 어문민족주의는 “한 언어의 기원적 순수성과

39) 같은 책, 218쪽.

규범적 정확성을 강조하거나 고수하려는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⁴⁰⁾인 ‘언어 순수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언어 순수주의’의 발현은 자국어와 자국문의 성립이 요구되는 국가 형성의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조선이 근대국가의 형태로 변모하던 근대계몽기,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성립하던 해방기에 ‘언어 순수주의’가 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순한’ 한자/한문을 배제하고 ‘순수한’ 한글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꿈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다.⁴¹⁾ 해방 후 우리말에서의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벌어진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은 실상 왜색의 배격보다 한자어 배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단적인 예로 일본식 한자어라고 지적한 한자어 중 상당수가 중국 한자어이거나 중국 한자어로 수용된 일본 한자어이었다.”⁴²⁾ 동아시아의 ‘동문(同文)의 역사와 일본 식민지의 역사가 결합해 한자 기원의 단어나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하려는 인식이 생겼던 것이다. 때문에 국한문체는 국문체로 가기 위한 이행기의 문체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한글에 대한 민족적 인식과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한자를 섞은 글을 쓴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한글이 한문/한자를 제치고 국자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문/한자의 글쓰기는 계속 이어졌다. 한문을 사용하는 영역과 한글을 사용하는 영역이 분리되

40) 조태린, 『한국의 언어 순수주의와 국어 순화』, 『어문학』 144, 한국어문학회, 2019.06, 118쪽.

41) 안예리는 그간 국문학 연구에서 ‘언문일치’를 사고했던 방식이 유럽 중심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라틴어나 한문이 언어적 근대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간 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크다고 하였다. “국문은 근대의 새로운 ‘우리’, 즉 뿌리 깊은 사대주의를 버리고 독립 국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우리’에게 합당한 정체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언어적 근대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12, 306쪽)”였기 때문에 국문체로의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42) 최경봉,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4, 326쪽.

있던 조선의 상황을 지나 근대 초기의 국한문체를 통해 그 영역이 합쳐진다. 조선 시대 이중 언어의 상황은 일상화된 것이었으므로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근대 이후 문체의 큰 변동은 구두 언어와 서기 언어의 분리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리되었던 영역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합쳐질 수 있었는가 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지점이 있다. 1) 조선 후기의 한글과 한문 사이의 번역 및 이중 창작 등의 출현, 2) 훈독과 음독의 전통이 이어진 결과⁴³⁾, 3) 상하로 분리되었던 신분과 계층을 합쳐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 등이 국한문체를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국한문체가 유행한 것과 같은 시기에 한글로 글을 쓰기 위한 실험 역시 진행되었다. 한글이 ‘국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문어의 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확장되어야 하고 글자로 옮기는 데 필요한 표기법이 정비되어야 했으며 한글 문장의 문법 역시 정비되어야 했다. 고종의 포고 이후 민족 국가 수립이 좌절되고 식민지에 접어든 이후에도 한글의 문어 정착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한자의 문제가

43) 안대회는 “1895년 이전에는 한문이라는 문어와 구어에 바탕을 둔 언문, 그리고 특수한 공문서인 이두문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각기 공용어로서 사용되었다(앞의 글, 205쪽)”고 언급한 바 있다. 한문 글쓰기와 한글 글쓰기로 양분되었던 방식이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방식이 존재했었다는 지적이다. “중국’ 문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쓰인 기호가 갖는 ‘고정성’보다는 읽혀진 기호로서의 유연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로스 킹, 『다이글로시아’라는 용어의 문제점』, 김용태 외 역, 『한문학보』 43, 우리한문학회, 2020.12, 419쪽)”는 견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자를 사용한 글쓰기를 했다는 측면보다 동아시아 각 국가들마다 한자를 읽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한문 훈독의 전통이 있었다. 로스 킹이 같은 글에서 존 휘트먼의 논문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처럼 “숨겨진 토착어(hidden vernaculars)”에 주목해야 한다. 즉 “행간에 토착어 주석을 다는 훈독 계열 방법에 숨겨진 토착어 읽기 관습(앞의 글, 420쪽)”은 한자 음독과 훈독이 혼합된, 한문과 한글 사이의 다리 역할을 놓는 국한문이 혼용된 문체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제기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맞춤법 규정을 두고, 표의주의에 입각한 조선어학회의 표기법과 표음주의에 입각한 조선어학연구회의 표기법이 대립되었다. 조선어학연구회에서는 한자 표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글 전용법 공포와 함께 현재의 어려운 한글 표기법 말고 쉬운 표기법으로 전환하자는 대통령의 의중도 함께 전달되었다.⁴⁴⁾ 1949년 11월 5일 ‘한자 사용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1954년에는 역사적인 표음주의 표기로 바꾸자는 이승만의 담화로 한글간소화 파동이 일어났다. 즉, 고종의 칙령과 한글 전용법 이후 ‘역사적인’ 형태를 준용하자는 쪽과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났고, 그 기반에는 한자어의 처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글 기반의 새로운 문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글은 한자와 끊임없는 세력 다툼을 벌였다.

한문을 배제하고 한글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관계를 왜곡하였다. 그러나 국문체가 한글만으로 이루어진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립하고자 하는 국문체의 형태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였지만, 그 논의는 상충되는 지점이 많았다. 시대의 요구를 담기 위해 국어와 국문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었지, 그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대계몽기 국한문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문 통사구조가 해체되지 않아 한문 문장이 그대로 사용되는 형태, 한문 통사구조가 해체되어 한문이 주로 구절 형태로 사용되는 형태, 한문 통사구조의 해체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문의 통사구조가 우위를 점하여 한문은 단어로 사용되는 형태 등이다.⁴⁵⁾ 국한문체와 국문체는 어디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일까. 순우리말이 한자어를 모두 대체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여전히 국한문체에 포함되어 있는 국문체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자/한자어는 외부의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44) 정재환, 앞의 글, 230쪽 참조.

45)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 과정』, 지식산업사, 2008, 13-20쪽, 113-145쪽 참조.

국문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에도 한문-한학의 세계가 짧은 영화를 누리기도 하였다.⁴⁶⁾ 문어 체계의 큰 변화의 와중에 끊임없이 한자/한문의 문제가 거론되고 심지어 한시 부흥 등의 전면적 회귀의 방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한문의 세계와 한글의 세계가 병존했던 역사와 이를 합하려고 한 국한문체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문은 한자어로 계속해서 살아남았는데, 그것은 한문 전적(典籍)이나 한시 부흥의 가능성과는 다른 곳에 위치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가 수립한 국문체는 한자의 세계와 결별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기 힘든 한자/한자어의 흔적이 담겨 있다. ‘한문/한자/한자어’의 존재 변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결론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성립되는 예술이므로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언어/문자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시기에는 국가의 성립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근대 초기의 국가 성립(국가 성립 실패 이후 민족 성립)을 위해, 그리고 해방 이후 국가 수립을 위해 언어/문자는 동원되었고, 문학자들 역시 이 시기 언어/문자를 민감하게 사고하였다. 그들이 만든 국문학 역시 그런 의미에서 민족문학이었다. 근대문학은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를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때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한자 및 한자어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46) 권보드래는 1910년대 한문-한학의 세계가 짧은 영화를 누렸다고 지적하였다. “관소리계 소설이 잇따라 漢譯된 1910년대 초·중반의 내력이 보여주듯 한문-한학의 세계는 1894년 과거제 폐지 이래 지속적으로 위기에 시달린 끝에 1910년대에 오히려 뚜렷한 정체성을 되찾은 양 보이기마저 했으며, 퇴조와 국지화라는 근본적인 조건 속에서나마 짧은 영화를 누렸다.(『1910년대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동악어문학』 54, 동악어문학회, 2010.02, 14쪽.)”

문학자의 인식에는, 국문체의 대의를 따르지 않는 분절의 지점들이 있다. 당대의 어문 이론을 지지하고 따르면서도 그것에서 위배되는 단절의 지점이 발생했던 것이다. 1910년대는 국문으로의 글쓰기를 위해 언문일치를 시도하였는데, 한문 문법이 가미된 문장의 형태도 자주 발견되었다. 1930년대에는 맞춤법, 표준어 제정을 위한 운동에 동참했지만 한자어의 배제에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1950년대에는 본격적 한글 전용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단절의 지점들은 ‘국문’에 대한 대의로 봉합되기도 하였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이에서 벗어난 여러 사례들이 등장한다.

문어 체계의 중심이 한문에서 한글로 이동했다는 것을 한자 및 한자어의 배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념적인 설정이었고, 주장되었던 바이지만 실제의 언어 사용에서 한문의 언어 체계와 한글의 언어 체계를 합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낭독의 세계와 묵독의 세계, 표의의 세계와 표음의 세계, 아(雅)의 세계와 속(俗)의 세계⁴⁷⁾가 합쳐지는 일대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문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한문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47) 이경구는 한문과 한글의 대립에 “문화 가치 의식을 대입하면 ‘이상적 문화인 雅’와 ‘현실적 문화인 俗’의 대립이기도 했다”고 지적하였다. (『18세기 후반-19세기 조선의 언어와 문자 의식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06, 264쪽.)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강경애 외 77인, 「한글철자법시비에 대한 성명서」, 『한글』 16호, 1934.09;
영인본, 『한글(2)』, 박이정, 1996.
- 김기림,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1950.
- 김동인, 「문단 30년의 자취」, 『신천지』, 1948.03-1949.08.
- 김억, 「문장소론」, 『조선문단』, 1935.04.
- 박승빈, 「조선언문에 관한 요구(2)」, 『계명』, 1921.06.
- 박태원, 「표현·묘사·기교」, 『조선중앙일보』, 1934.12.17.
- 야간총생의 일학자, 「문자 사용의 제일인자적 조선문예가 제씨에게 기함」,
『정음』 4호, 1934; 영인본, 『정음(상)』, 반도문화사, 1978.
- 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 일성자, 「한글·정음 대립 소사」, 『사해공론』 39호, 1938.06.
- 하동호 편, 『국문론집성』, 탑출판사, 1985.
- _____, 『한글논쟁논설집(하)』, 탑출판사, 1986.
- 「한글 토론회 속기록」, 『동아일보』, 1932.11.11-29.
- 『청춘』 7호, 1917; 영인본, 역락, 2007.

2. 논문 및 단행본

- 고영근, 「‘한글’의 작명부는 누구일까-이종일·최남선 소작설과 관련하여」, 『새국어생활』 13권 1호, 2003.봄, 131-150쪽.
- 권두연, 「신문관의 ‘문화운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02.
-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동악어문학』 54, 동
악어문학회, 2010.02, 5-43쪽.

- _____,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 김병문, 『언어적 근대의 기획-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2013.
-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상)』, 학연사, 1986.
- 문혜윤, 「해방기 박대원의 문장론」,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03, 177-208쪽.
- _____,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8.
- 박헌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17-47쪽.
- 사이토 마레시, 『한자권의 성립』, 허지향 역, 글항아리, 2018.
- 시정근, 『박승빈』, 박이정, 2015.
- 안대회, 「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2006, 203-232쪽.
- 안예리, 「언어적 근대에 대한 시론적 고찰-고전어와 속어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12, 285-313쪽.
-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한국사학사학회, 2001.03, 79-140쪽.
- 이경구, 「18세기 후반-19세기 조선의 언어와 문자 의식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06, 263-286쪽.
- 이용호,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1974.
-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어 이데올로기」,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2005.여름, 337-395쪽.
- _____, 「한자 인식과 근대어의 내셔널리티」,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21-251쪽.
-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 과정』, 지식산업사, 2008.
- _____, 「한글전용과 한국문학사-번역과 교과서로 보는 문학사의 조건

- 들』, 『민족문학사연구』 72,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131-150쪽.
-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성균관대 출판부, 2008.
- 임홍빈, 「‘한글’ 명명자와 사료 검증의 문제 -고영근(2003)에 답함」, 『어문연구』 35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7-33쪽.
- 정영훈, 「해방 후 김기림의 한글 전용 논의에 대하여(1)」, 『우리어문연구』 44, 우리어문학회, 2012.09, 623-656쪽.
-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2013.
- 조태린, 「한국의 언어 순수주의와 국어 순화」, 『어문학』 144, 한국어문학회, 2019.06, 115-139쪽.
- 최경봉,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4.
- ,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2005.
- 킹 로스, 「‘다이글로시아’라는 용어의 문제점-전근대 한국의 말하기와 글쓰기의 생태계에 대하여」, 김용태 외 역, 『한문학보』 43, 우리한문학회, 2020.12, 413-442쪽.
-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21-260쪽.

<Abstract>

Modern Literature Writers' Recognition of Sino-Korean Words and Korean/Hangul Style

Moon, Hye-Yoon*

The modern “Korean” discourse was influenced by linguistic nationalism, which projected the existence of the nation into language. The arguments of the “Korean” discourse and the reality of the “Hangul” sentence were both overlapping and fragmen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ino-Korean words by the writers, focusing on the issues of Chinese/Chinese characters/Sino-Korean word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process of forming Hangul sentences. The central problem in establishing the Hangul written system in the 1910s was ‘the unification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t was a matter of vocabulary and phrases order in which were arranged. Even if a phrase with Chinese grammar added to it is in a sentence, it is possible to make a sentence by intervening with the Korean to[토] or grammatical element that connects the Chinese verses together. The degree of involvement in Chinese grammar, exposed/non-exposed Chinese characters, and frequency of use of Sino-Korean words did not matter. In the 1930s, the question of the exclusion of Chinese characters/Sino-Korean words from the side that insisted on the ideological notation and the acceptance of Chinese characters/

* Korea University

Sino-Korean words from the side that insisted on the phonetic notation was raised. Literature writers favored the ideological notation, but to expand the expression range of Korean sentences, they allowed the display of Chinese characters to be exposed and tried to maintain the unique area of Sino-Korean words that were not replaced by others. In the 1950s, there was a movement to establish a “pure” Korean language through the exclus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Sino-Korean words. Literature writers did not agree with the cause of the language movement anymore and tried to understand the degree to which Sino-Korean words permeated their lives and to accept them as part of the Korean language that did not expose Chinese characters. The problem of Chinese characters/Sino-Korean words is constantly intervening in the formation of Hangeul sentences. The reason why a complete transition to the Korean style was achieved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cript was in line with the time of the essential state formation. However, unless all of the Sino-Korean words are replaced by pure Korean words, we can still be said to be included in the final stage of the Korean-Chinese styl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way that Korean and Korean-Chinese styles have been regarded as confronting.

Key Words: Chinese, Chinese characters, Sino-Korean words, Hangeul, Korean style, Korean-Chinese style, statement, expression, interpretation

■ 논문접수 : 2021년 3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6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